

광주·전남 교육감 취임 2년 성과와 과제

역사 대안교과서 제작 주도 '기초학력 미달 해소' 숙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직선 2기 전반기는 갑옷을 입은 투사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 정부와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며 맞섰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도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교육감은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 "교육감들 행동이 매우 무책임하다"는 정부를 향해 "적반하장식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었고 근거도 없는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라며 맞받았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도 1인 시위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국가 책임을 부르짖으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 책임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4·13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을 활용, 누리과정 등 핵심 교육정책을 해결하는데도 적극 나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사 교과서 출신으로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안 교과서 제작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도 교육 수장으로서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 역사문화적으로 발목을 잡는 행위"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비판했고 예산을 확보, 전북·강원·세종 교육청과 공동으로 대안교과서 제작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산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는 냉엄한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매년 수십 억원을 투입해도 줄어들기는 커녕, 급증하고 있는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대책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독서·토론 통한 수업 혁신 농어촌 교육 공동화 풀어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직선 2기 전반기에 낙후된 전남교육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쏟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꿈을 키우는 교실, 행복한 전남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악한 교육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춘 교육 정책을 핵심있게 펼쳐왔다는 게 교육계 시각이다. 당장, 전남형 공교육 혁신학교의 모델인 무지개학교를 확대해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독서·토론 수업을 통한 교실 수업 혁신, 시베리아열차학교와 선상무지개학교 등 특색있는 교육 정책을 펼치면서 학부모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장 교육감은 특히 생각을 키우는 독서, '말문을 여는 토론', '살을 나누는 책 쓰기'를 내걸고 다양한 독서·토론 수업을 펼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교육감 스스로 '독서·토론 수업으로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닌, 다이아몬드 수저 세대를 길러내겠다'고 말할 정도다.

전남도 교육청의 대표적 독서 분위기 조성 프로그램은 독서토론 열차학교를 비롯, ▲고등학생 토론·논술 캠프 ▲중학생 토론대회 ▲논술 사 이버 점성교실 등이 꼽힌다. 반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교육 공동화 현상은 장 교육감 앞에 놓인 최대 숙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5 초·중등학교 공시정보' 분석 결과, 전남 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생수가 ▲2014년 2.6명 ▲2015년 3.6명 등으로 증가한 점에도 주목, 좀 더 짜임새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2 | 해질 19:51 | 달 뜨기 02:30 | 달 질기 16:20

사실상 관리 유의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23/26	보성	22/25	순천	22/25
여수	21/24	영광	22/26	진도	22/25
완도	22/25	전주	23/27	군산	23/26
구례	21/26	익산	22/27	홍성	22/27
장성	21/26	해남	22/25	함평	22/23

◇바다 날씨

지역	방향	파고(m)	시간
서해	남동	0.5~1.5	남~남서 1.0~2.0
	남서	1.0~2.0	남~남서 2.0~3.0
남해	남동	0.5~1.5	남~남서 1.0~2.0
	남서	1.0~2.0	남~남서 1.5~2.5

◇생활지수

경고	식중독
보통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주간 날씨

날씨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8(금)
날씨	☁	☁	☁	☁	☁	☁	☁
강수량	22/26	22/26	22/26	22/26	22/27	22/28	22/29

"농어촌학교 강점 살려 특화...폐교 막을 것"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전반기 기자회견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30일 '주민직선 교육감 2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이슈화 된 교권보호 대책과 관련, 거문도와 흑산도에 통합관사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모든 관사에 시진장치를 하고 비상벨과 안전장, CCTV 설치를 8월중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농·어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과 지방교육재정

감소 등으로 유아교육 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마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당당한 미래를 위해 독서·토론 수업 등 전남의 핵심 교육정책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어난 곳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한다"면서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린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위기에 처한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호남권 잡월드 유치를 놓고 광주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주는 전남의 희생을 딛고 번성했는데 모든 것을 광주가 갖고 간다면 상상이 아니라 전남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장마전선 북상...광주·전남 최대 80mm 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일부터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번 비는 6일까지 계속될 것이다. 지난 3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일 광주·전남지역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남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80mm로,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20mm 내외의 집중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 해상에서 1~3m로 높게 일겠다. 이번 장마전선은 오는 6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3~6일 사이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9~21도, 최고기온 28~29도)과 비슷하고, 강수량은 평년(8~15mm)보다 많겠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리산 멧돼지 암마 첫 수유 모습 포착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는 지리산 야생동물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무인센서 카메라를 통해 국내 처음으로 수유 중인 야생 멧돼지의 모습을 포착했다고 30일 밝혔다. 카메라에 담긴 야생 멧돼지는 땅바닥에 드러누워 새끼 멧돼지 4마리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는 카메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담비와 삿, 오소리, 노루 등 다양한 포유류의 모습이 담겼다면 서식지 보호를 위해 정규 탐방로 외 샛길 출입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제공>

광주 울 교통사고 34명 사망...절반 이상 무단횡단 원인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 교통사망사고로 이상 간선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는 노인들의 무의식적인 무단횡단이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이 나설 방침이다. 또 노인들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6월에만 6건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세에 있다"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행자 사망사고의 70%는 편도 3차

로 이상 간선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는 노인들의 무의식적인 무단횡단이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이 나설 방침이다. 또 노인들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6월에만 6건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세에 있다"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행자 사망사고의 70%는 편도 3차

대한보청기 www.maxo.co.kr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만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스'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스'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스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스 '1,2,3' **맥스 '애비오'** **맥스 '스큐프'** **맥스 '크리스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스를 시험견장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보청기 본사 직영센터의 특징점 - 직영가·18개월 무이자 할부·렌탈·편리한 직영 시스템

33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지금 상담중...!

1599-9040